**적 그리스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독교(2) /프랜시스 프랜지팬**

 ****

† 적 그리스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독교(2)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담요가 그들을 덮고 있는 것처럼

우리 메시지의 말씀이 강한 저항 속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며칠을 보낸 후에 깨어 일어나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분별하도륵 계시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앞부분인

"저는 대적하는 자라"는 말씀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살후0204. 파멸(지옥)의 아들은 하나님이라 불리우거나 경배 받는 모두에게 맞서서,

그들 위에 그 자신을 드높히고, 그가 하나님임을 스스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으로서의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느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은 문자 그대로 진리,

특히 진리의 참 뜻을 계시해주는 새로운 진리를 대적합니다.

이 영은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생명력을 되찾기 위해 일어나는 어떤 운동도 대적합니다.

이 영이 주재하는 교회에서는,

설교에 합심하는 모기 소리 같은 "아멘"에도

생각 속에 이 영이 지어놓은 요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안색을 통해

이 영의 증오에 찬 눈빛이 번뜩입니다.

우리가 적 그리스도의 영을 더 잘 이해했을 때

그를 대적하여 싸우는 싸움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 고장에 있는 이 영의 영향력에 대적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다섯 목사님과 저, 그리고 몇몇 초교회적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교회로 옮겨가며 매주 중보 기도 모임을 갖기로 작정했습니다.

석 달 후에는 매주 모인 사람들의 참석자가 두 배로 늘었고

그 후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중보 기도자들이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고 그를 묶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다른 목사님들과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경건한 소원들이

우리 지역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크게 갖되 육신적인 야심은 작아지게 하십시오.

개인적인 야심은 적 그리스도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견고한 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할 때

개인적인 야심 대신 종의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프랜시스 프랜지팬이 지은 “영적 전투의 세 영역” 중에서...)